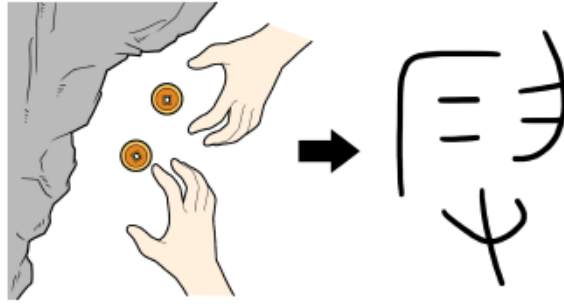


4(2)  
-  
1

회의문자①



假

거짓 가:

假자는 '거짓'이나 '가짜'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假자는 人(사람 인)자와 段(빌 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段자의 금문을 보면 구석에서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는 <sup>人</sup>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人자가 더해지면서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만들어졌다. 假자는 본래 물건을 빌려준다는 의미에서 '빌려주다'나 '임시'를 뜻했지만, 후에 진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확대되어 '거짓'이나 '가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假

금문

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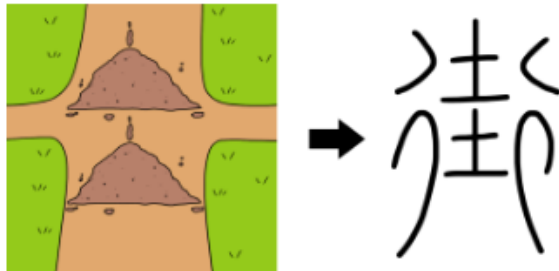
소전

假

해서

4(2)  
-  
2

회의문자①



街

거리  
가(:)

街자는 '거리'나 '길'이란 뜻을 가진 글자이다. 街자는 行(다닐 행)자와 土(흙 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行자는 사거리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본래 '거리'나 '길'이라는 뜻은 行자가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行자가 '가다'나 '다니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土자를 더한 街자가 '길'이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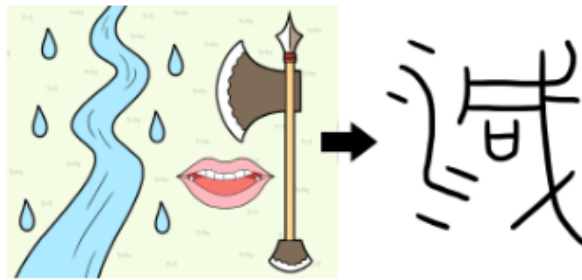
소전

街

해서

4(2)  
-  
3

형성문자①



減

덜 감:

減자는 '감소하다'나 '덜다', '줄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減자는 水(물 수)자와 咸(다 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咸자는 창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함→감'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減자는 본래 물이 증발하거나 땅에 스며드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감소하다'나 '줄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減

금문

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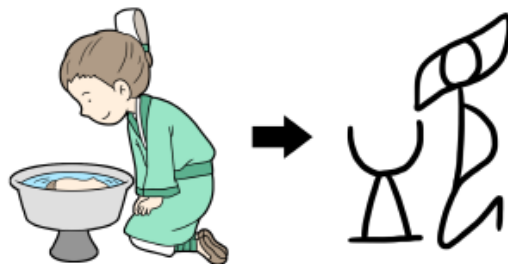
소전

減

해서

4(2)  
-  
4

회의문자①



監

볼 감

監자는 '보다'나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監자는 皿(그릇 명)자와 臥(누울 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監자의 갑골문을 보면 큰 눈으로 그릇을 내려다보는 모습이 𠄎 그려져 있었다. 그릇에는 물이 담겨있다. 그러니 監자는 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監자의 본래 의미는 '거울'이나 '비추어보다'였다. 그러나 후에 자신을 비춰본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거울로 삼다'나 '보다', '살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큰 눈으로 그려졌었던 사람이 臥자로 표현되었다.

監

갑골문

監

금문

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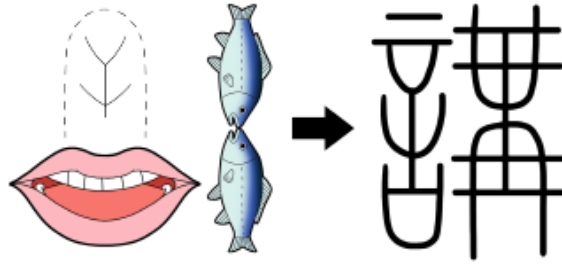
소전

監

해서

4(2)  
-  
5

회의문자①



講

월 강:

講자는 '익히다'나 '배우다', '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講자는 言(말씀 언)자와 講(짜다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講자는 물고기 두 마리가 서로 입을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조우하다'나 '만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講자는 이렇게 '조우하다'라는 뜻을 가진 講자에 言자를 더한 것으로 '서로 만나(講) 이야기(言)를 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講자에서 말하는 '익히다'나 '배우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가며 배워 익혀 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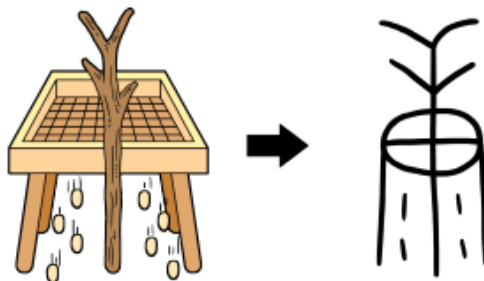
소전

講

해서

4(2)  
-  
6

회의문자①



康

편안 강

康자는 '편안하다'나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康자는 庚(천간 경)자와 米(쌀 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庚자는 곡식을 낱알을 털어내는 '탈곡기'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탈곡기를 그린 庚자 아래로 米자가 있으니 康자는 탈곡기에서 곡식의 낱알이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던 시절 추수한 곡식의 낱알을 털어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털어낸 곡식으로 곳간도 채울 수 있었으니 마음 또한 편안해졌을 것이다. 康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글자이다.

康

금문

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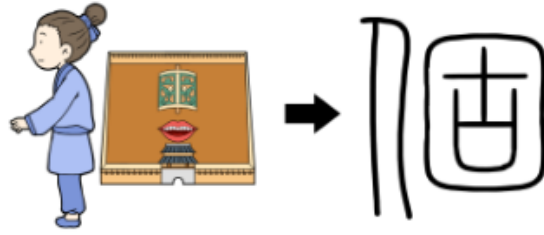
소전

康

해서

회의문자 ①

4(2)  
-  
7



個

날 개(·)

個자는 물건을 세는 단위의 글자로 '날개'라는 뜻이 있다. 個자는 人(사람 인)자와 固(굳을 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固자는 '굳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고→개'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個자와 같은 뜻을 가진 글자로는 竹(대나무 죽)자가 들어간 箇(날 개)자가 있다. 두 글자의 쓰임이나 뜻은 같다. 다만 箇자가 대나무 가지를 이용해 숫자를 세는 방식이었다면, 個자는 사람의 수를 세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에 대한 구분이 없이 사람이나 물건을 세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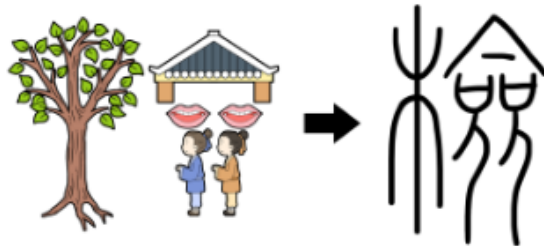
소전

個

해서

회의문자 ①

4(2)  
-  
8



檢

검사할  
검:

檢자는 '조사하다'나 '검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檢자는 木(나무 목)자와 僉(다 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僉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모두'라는 뜻이 있다. 檢자는 본래 '검사증'을 뜻하던 글자였다. 예전에는 책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던 상자를 서갑(書匣)이라고 했다. 서갑에 보관하는 책은 검사를 완료했다는 의미에서 증서를 붙여 놓았는데, 檢자는 그 증서에 표기하던 글자였다. 그러니 檢자에 쓰인 僉자는 모든 검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할 수 있다.

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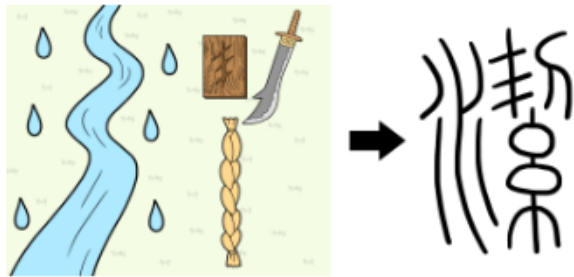
소전

檢

해서

4(2)  
-  
9

회의문자①



潔

깨끗할  
결

潔자는 '깨끗하다'나 '맑다', '간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潔자는 水(물 수)자와 絜(깨끗할 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絜자는 서로의 약속을 굳게 맹세한다는 의미에서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다. 潔자는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진 絜자에 水자를 더한 것으로 물로 사물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사물을 깨끗이 하는 물의 작용에서 착안하여 만들어진 글자이다.

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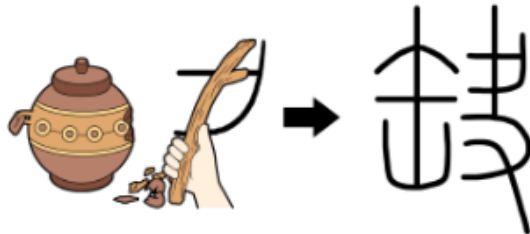
소전

潔

해서

4(2)  
-  
10

회의문자①



缺

이지러질  
결

缺자는 '이지러지다'나 '없어지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缺자에서 말하는 '이지러지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다. 缶(장군 부)자는 손잡이가 있는 항아리를 그린 것이다. 夬자는 한쪽 면이 트여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터놓다'라는 뜻이 있다. 缺자는 이렇게 '터놓다'라는 뜻을 가진 夬자에 缶자를 결합해 항아리의 한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缺자는 무거운 항아리를 옮기는데 필요한 손잡이가 떨어져 제구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지러지다'나 '없어지다', '모자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缺

소전

缺

해서